

기꺼이 흔들리고 주저하기에 대해

교육의향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악의 평범성’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나치 전범으로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고 집단 학살하는 일을 맡은 인물 중 하나이다. 아렌트는 1961년부터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하면서 그가 저지른 악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한다. 그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아렌트가 눈여겨 본 점은, 아이히만이 습관적으로 관청 용어, 즉 ‘상투어’를 쓴다는 것이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사용하는 ‘상투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투어를 쓰는 일은 ‘생각하지 않음’ (thoughtless)의 반증이었다. 말하기의 무능이 생각의 무능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거대한 악으로 치닫한다는 것. 이것이 아렌트가 주목한 악의 뿌리, 즉 ‘악의 상투성’ (banality of evil)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더듬 더듬 읽어가다 보면, 아이히만이 처음부터 유대인 학살에 열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치의 집권이 본격화되고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히만은 몰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민을 권하는 등, 유대인의 피를 흘리지 않고 국외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럼 언제, 무엇을 계기로 아이히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이히만이 되었을까?

1941년 아이히만은 베를린 모처에서 열린 국가차관회의에 자신의 상관인 하이드리히와 참석하여 회의를 기록하게 된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최종 해결책’ 즉 유대인을 학살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 기관의 모든 노력들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아이히만은 이 회의를 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긴 설명을 따라가보자.

〈이 회담 날이 아이히만에게 잊혀지지 않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비록 그가 최종 해결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는 여전히 ‘폭력을 통한 그러한 피투성이의 해결책’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구심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 이곳에서, 이 회담에서 가장 유망한 사람들이, 제3제국의 교황들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는 히틀러뿐만 아니라, 하이드리히와 ‘스핑크스’ 뮐러 뿐만 아니라, 친위대나 당뿐만 아니라, 착하고 연륜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피투성이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 아이히만이 기억한 것처럼 그 이후로는 (유대인 학살이) 점점 더 쉬워지고 또 곧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강제 이주’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재빨리 ‘강

제 소개’의 전문가가 되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만 치의 의심도, 주저함도 없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더욱 ‘잘’ 학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골몰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의구심을 내려놓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 가졌던 일말의 불편함으로부터 기꺼이 도망쳤기 때문이다. 권력과 권위 앞에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순히 복종했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내란범들이 각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시기가 오면, 시민들은 곳곳에 둘러앉아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들은 광장에서 보여준 민주시민의 역량이 어떻게 교실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광장을 밝힌 응원봉들이 어떻게 교실 안을 비출 수 있게 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때 나는 국회의사당에 무장을 하고 뛰어 들었던 젊은 군인들의 흔들리는 눈빛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용기있게 흔들리고 주저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과 태도가 요구되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교실 속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나는 그것이 이 땅의 역사에서 길어올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社說

사고 수습·원인 규명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대참사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참사가 발생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형언할 수 없다.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미증유의 참사 속에 망연자실해 있을 유가족과 지역민 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당국도 사고 당시 엔진에 폭발음이 들린 점과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항공 7C2216편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복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던 중 엔진에 무엇인가 흡입돼 폭발하는 영상이 포착됐다. 이어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 착륙도중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상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가족의 슬픔도 덜어줘야 한다. 또 다시 후진적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된다. 유가족과 소통체계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 정부가 제대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 협력도 필요하다. 181명이 피해를 입은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장. 그곳에서만큼은 여야나 정파적 이념을 떠나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전남 라이즈 지역발전 기폭제 되길

지역 맞춤 전략 적극 추진해야

교육부가 지난 27일 범부처 5개년 계획 라이즈 지원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위해 그간 중앙 정부가 재정을 대학에 직접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체계다. 이번 라이즈 사업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대학이 벽을 없애고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내년 국고 라이즈 사업비 2조 10억원을 투입한다. 국고는 일부 기존 교육부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형태로 편성됐다. 광역·시·도는 지급받는 국고 보조금 대비 20% 이상을 자체 지방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대학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내년 한 해 2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은 소재지에 상관없이 대학 혁신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할 수 있고, 대학은 관련 보조금을 사업 칸막이 없이 쓸 수 있게 했다.

이미 광주는 ‘지역·대학 함께 업(UP) 그레이드, 2030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교육과 산업, 문화, 복지, 정주를 연계하는 라이즈 허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기본 계획을 내놨다. 지역과 대학 공동체의 가치를 생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정주인재 육성과 기업성장 산·학·연 컨베이어 구축 등이 골자다. 전남은 세 권역을 나눠 대학이 없는 시·군에도 지역 대학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이 주체가 돼 주민과 시·군, 기업 등이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여건, 대학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적극 추진해 라이즈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과 대학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28일(현지시간) 고속으로 달리던 여객 열차와 소방 트럭 한 대가 충돌, 방트럭이 뒤집혀 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과 열차 승객 최소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AP/뉴시스

서석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했다는 속보를 확인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절기를 맞아 국제선 노선을 확대한 이후 주변의 많은 이들이 무안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갔던 터라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구조자는 2명에 그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참사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향한 무안국제공항 1층은 황망한 소식을 낚을 잃은 유가족들로 가득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취재를 위해 브리핑을 듣는 와중에도, 유가족들에게 질문을 건네기까지도 무거운 마음에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이들, 오랜만에 효도 관광으로 방콕으로 향한 부모님... 이용객 대부분이 지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이 더욱 깊이 박혔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상황인 만큼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함을 절감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애도’에 대해 ‘부재한 자에게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



한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존재는 죽음으로도 비워낼 수 없다가에, 그 사랑을 새로운 대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놓아 가족의 이름을 부르던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제대로 된 애도를 위해 사회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및 원인 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올바른 책임과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세월호를 시작으로 이태원,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사랑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떠나가는데,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참사 당일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참사에서 동생, 친구를, 동료들을 잃은 나조차 그러하기에.

차가운 무안공항 바닥에서 온 몸으로 고통을 절감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상처는 언젠가 아물기 마련이고, 우리는 이 흉터를 안고 또 다시 살아야 할 것이다. 살아야 할 모든 이들의 상처가 부디 아물 수 있기를, 이들이 진정한 애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해 본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